

기도

1.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2. 삶 가운데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나눠주세요.

신앙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보다 전통을 높이려 하는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천사, 모세, 제사장, 구약의 제도보다 위대하며 이것들로 돌아가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더 많은", "더 큰"과 같은 단어와 관용구가 25회나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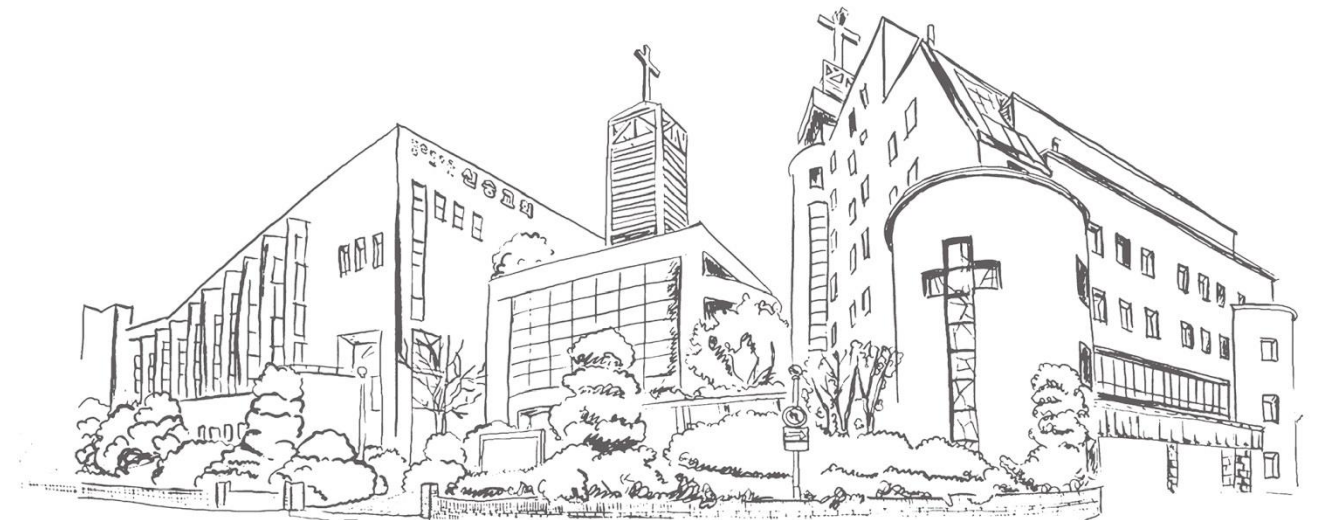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2년 9월 4일

나를 붙드신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나를 붙드신다

히브리서 2장 13-18절 (찬28장, 214장)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를 붙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13-16절).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드시기 위해 첫째, 길을 알려 주십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13절a).’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곧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음을 의미합니다(13절b).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너뜨리셨습니다(14절).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습니다(15절).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오래 살기 위해 힘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낙원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택한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십니다(16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통해 심령이 회복되고, 날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셨다는 말씀입니다(17-18절).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다는 의미입니다(17절a).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슬픔 감정을 느껴서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통을 친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17절b).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18절).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위로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해서만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